

제4회 학생인권 토론회

‘학생자치 활성화에 대하여’

- ▶ 일시 : 2016. 11. 26.(토) 11:00 ~ 13:00
- ▶ 장소 :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 ▶ 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토론회 순서

- ▶ 일시: 2016년 11월 26일(토) 11:00 ~ 13:00
- ▶ 장소 :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시 간	내 용
10:30~11:00	• 접수 및 안내
11:00~11:10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 말씀 - 이상철(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
11:10~11:20	• 사회 - 이현근(정읍교육지원청 장학사) • 기조발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정옥진(인성건강과 교사)
11:20~12:30	• 토론자1 - 전동균(군산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 • 토론자2 - 서지현(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 • 토론자3 - 조유민(이리고등학교 학생회 회장) • 토론자4 - 임선희(전주용흥중학교 학생) • 토론자5 - 김지훈(전주고등학교 교사)
12:30~13:00	• 질의 및 자유토론
13:00~	• 정리 및 폐회

기조발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옥진(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교사)

들어가며

학생은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제받고 지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들의 자치조직을 만들어 권리를 신장시켜 나가며 학교의 주체로서 학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는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설계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 내에서 공적인 무리를 이루면 ‘학생회’가 되며, 이 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축제 기획,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같은 굵직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적인 무리를 이루어 펼치는 자치활동으로는 ‘동아리’를 들 수 있다. 학생에게는 십대 시절 다양한 경험을 누리며 성장할 권리가 있고, 학교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원하여야한다. 학생들이 만들고 싶고 배우고 싶은 활동들은 자발적인 동아리 조직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해야한다.

즉, 학생자치활동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의 민주적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활동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정책

1. 목적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이를 실현
- 학생 스스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 역량 강화 지원
-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 ㉡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자치활동 실태

(2015년 12월)

학교 급	조사 학교수	편성 시간	학생회실	예산편성 운영권부여	생활협약 제정	학생자치법정	
						실시학교	평균법정 개최횟수
초등학교	417	12.6	54(13%)	139(33%)	163(39%)	29(7%)	2.8
중학교	208	10.8	106(51%)	128(62%)	74(36%)	32(15%)	1.8
고등학교	127	15.6	102(80%)	80(63%)	30(24%)	30(24%)	1.8
특수학교	10	15	0	5(50%)	5(50%)	0	0
총계	762	13.5	262(34%)	352(46%)	272(36%)	91(12%)	2.1

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정책

가.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

- 중·고등학교 대상 38교 지원(연간 500만원)
- 2016년까지 158개교 지원
- 설치지원 학교 담당자(교감, 인권담당) 워크숍 및 컨설팅 (4월)

나. 학생자치활동 운영

- 초·중 10시간, 고 17시간 이상 운영 권장
- 학생자치활동 예산 표준기본운영비 1%이상 편성 권장
- 학생회에 예산·편성 운영권 보장
 - 학교축제, 어린이날, 학생의 날, 스승의 날, 학생인권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학생회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다.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 초·중학교 : 학생회 임원 대상,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 고등학교 : 학생회 임원 대상, 도교육청 주관 (1박 2일)
- 캠프내용 : 임원진 대상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성화 방안 토론
임원들간의 정책 공유, 학생회 주관 행사기획의 실제 등
- 지역교육지원청별 학생자치활동(지역별 학생회장단 모임 등) 사업 지원

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생활협약 제정 운동

- 장수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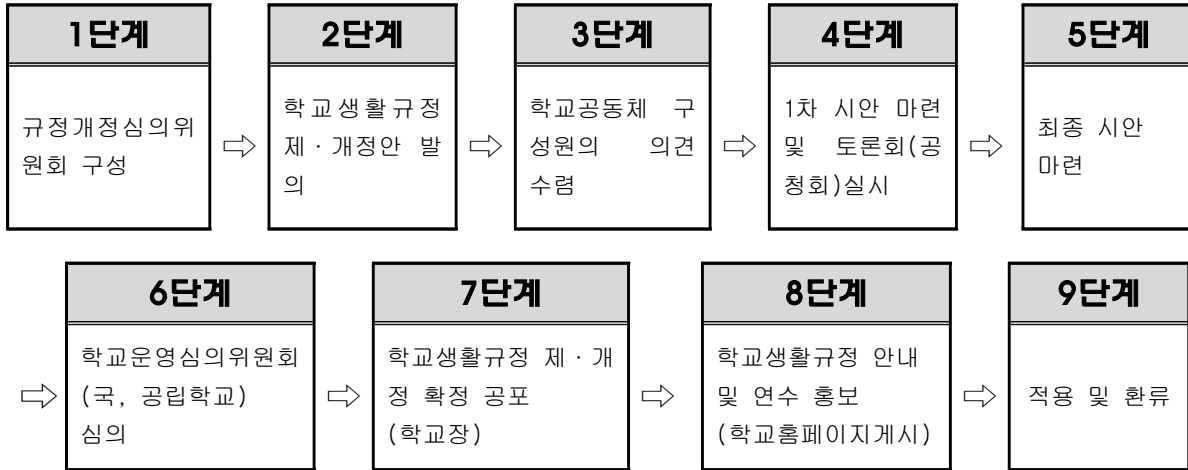
교사 3행	학생 3행	학부모 3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수업을 하겠습니다. •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 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친구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하루 10분 이상 마주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 아이의 성적보다 마음을 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 남보다 잘 하라는 말보다 함께 어울려 하자는 말을 자주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전주신일중학교

교사 실천 약속	학생 실천 약속	학부모 실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 학생의 단점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 선생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 학교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말로 인사하기, 안아주기 등 자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대화하겠습니다. • 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하겠습니다.

마. 학교생활규정 개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 참여 40% 이상)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제○○조 (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 ⑦ 학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존중)하며, 필요시 학교장과 협의한다.

바.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 구성 : 지역교육지원청 별 공개모집 40명,
소수자 의견 반영을 위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선발된 10명(총 50명)
- 임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1년)
- 역할
 - 의견 제출 : 조례 개정,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실천계획 등)
 -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의견 제출
- 운영
 - 출범식, 정기회의, 워크숍, 해단식
 - 임원 : 대표 1인, 부대표 3인(초·중·고 각 1인), 지역대표 4인

사. 학생인권 보호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 대상 : 도내 초·중·고 교감 및 학생인권 담당 교사 1500명
- 시기 : 10월

- 내용 : 학생인권 증진, 학생인권 침해 사례, 학생자치활동 운영 실제
인권존중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바. 기타

- 초·중·등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개발 보급
: 선거, 학급회, 회의순서, 임원진 연수, 대의원회의, 학교생활규정 등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 인권, 자치, 평화, 노동인권 관련 인권실천활동 전개
(40팀)
-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 인권 및 자치활동 수업 안 개발 및 탑재(6팀)
- 도내 고등학교(133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사비 지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영역		내용
학생 자치활동 방해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와 문화 • 입시위주의 교육 체제(성과주의) •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통제 • 교사가 가지고 있는 획일적인 교육 철학 •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 낮은 인권감수성과 자치의식 • 시간과 공간의 미확보 • 대규모학교의 어려움
활 성 화 방 안	학 생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회의 활성화 • 민주적인 선거문화 • 내실 있는 임원진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1년 계획 작성) • 인권과 자치가 보장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참여(학생 의견 수렴) •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참관) • 학생회 활동의 홍보 강화 • 학생회 선배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인수 인계 • 지역교육지원청 주최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캠프 참여 • 지역별 학생회 연합회 참여를 통한 연대 및 공유
	학 교 의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의결사항 최대한 존중) • 학생자치활동 시간, 공간(학생회실), 예산 편성 • 학생회예산 지원(선거공약, 여론수렴 결과, 각종 회의와 모임) • 학교생활규정 학생회 활동 보장 • 학생회 지도교사를 학생회가 위촉 • 민주적이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학생자치활동 경험 • 학생 관련 행사 학생회 주관 운영 • 관리자의 교육철학, 교직원(담당 교사의 추진력), 학부모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학생자치활동 경험 • 학생 관련 행사 학생회 주관 운영 • 관리자의 교육철학, 교직원(담당 교사의 추진력), 학부모의 지원 • 자발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

마치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자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관행과 편의주의에 의해, 또는 권위적인 관리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학교는 수평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왔으며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경험할 수 없게 하였고, 그런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민주적인 절차와 학생자치의 권리를 학교운영과 학급운영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생자치를 요구하고 실천하려는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 학생자치를 인정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갈등, 관리자와 교사의 갈등이 학생자치활동의 방해요소가 되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며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는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우리가 만들자 학생자치 이젠 꿈이 아닌 현실로

전동균(군산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

학급자치, 학생회가 잘 안 되는 이유

저는 학생자치활동을 경험하며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 있어 문제점을 보고 싶습니다. 학생자치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3분류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주인의식과 적극적 참여부족이 그 첫 번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학급자치의 기본은 서로의 의사소통과 의견 수립이 잘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이 없다면 회의는 진행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인의식이란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학생회 임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급자치 가 활성화가 되려면 임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주인의식 및 참여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학교의 지원과 관심부족입니다. 학급자치에서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하려면 항상 걸리는 예산문제 등 학교의 지원이 너무 미미한것도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회의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내놓은 결과가 순식간에 무산이 되면 학생들은 일에 흥미와 관심을 잃고 되려 첫 번째에서 말 했듯이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관심부족도 한몫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거쳐 나온 정책들을 선생님께 가져가면 번번히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선생님의 뜻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선 무기력해지는 일입니다.

세번째 고등학생으로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는 대 학교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고 서로 경쟁을 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큼니다. 시험기간만 다가오면 학급자치는 물론 학생회 회의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이 회의를 만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학급자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가 됩니다.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문제와 선생님과 학교의 무관심이 결국엔 학생자치의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와 주인의식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이 큰 3가지 문제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는 결론은 일단 선생님과 학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만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바람직한 회의라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의 참여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견수렴이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관심과 동시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강구하여 만들면 현실적인 문제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학생자치의 실현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가 잘 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자치가 잘 되려면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적극적인 자세, 학교와 선생님들의 관심도 분명 중요하지만 여기선 각각의 역할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학생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은 분명 학생신분으로서의 제약도 많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이러한 것을 감수하며 우리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의 이바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역할입니다. 학교는 학생자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결국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회의의 결과가 나온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받아 들여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어 학생들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정기적인 회의 날짜를 잡아주어 수업과 학생만의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을 대하는 학교의 역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역할 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있을 까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관심을 가져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대학입시의 총성없는 전쟁터에서 저희는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학생자치의 실현이라며 아무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무작정 하라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의 학생자치를 생각을 해준다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잠시나마 입시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정규적인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하고 입시와 자치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줘야 합니다. 진정한 학생자치의 실현은 따로따로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 같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한 곳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을 보고 같이 나간다면 학생자치의 꿈이 아닌 이제는 실현이 되는 모습이 됩니다.

(학생자치) 지역별 우수사례

11월 5일에 학생자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장곡중학교를 다녀왔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학생을 위한 ,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일단 선거 때부터 철저하게 또 재미있게 꾸려나

가는데 일단 제가 신기했던건 입후보자 토론회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후보자 토론회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선이나 미국 대선등 TV에서나 불법한 일들을 직접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후보자로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유권자들의 선택의 확실성이 더 확고해진다는 것과 그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확실성이 확고해지는 것은 후보자들이 토론을 할 때 서로의 공약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발전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믿음이 가고 선택의 확실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을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고 이 공약이 학교에 진정 필요한 것인지 누구의 공약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자치와 발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더 질 높은 학생자치가 실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론회의 우려가 되는 부분은 후보자 서로의 비난과 비방이 걱정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장곡중학교는 애초에 토론을 할 때에 확실한 주제를 주고 어느 정도의 선만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적정선에서 유지를 한 다는 것이 과연 중학교의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지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의 학급회의의 순서는 1. 주제 전달-2. 의견수렴-3. 부수적 주제&건의사항-4. 의견수렴 순으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과정에서 선생님 모두가 개입을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의견을 정리하고 수렴을 한다는 것이 정말 부럽고 또 놀라웠습니다. 여기서의 개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담스럽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같이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가 오래 끌 일도 없고 학생들의 참여율이나 적극적인 자세를 끌어오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께서 함께하면 두 번 전달해야하는 그러한 번거로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 처리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선 학생자치 캠프를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를 갔다 온다고 합니다. 학생자치 캠프를 3번 정도 갔다 오면서 서로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더욱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한 질이라든지 아주 높고 또 서로간의 마찰 없이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로 회의가 지연이 된다는지 아수라장이 되는 일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학생과 선생님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스승의날 이벤트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해보이는 일들이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흥미 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재미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감과 유대감 형성에도 아주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유대감과 신뢰감 그리고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 되었는데 정말 이 학교는 서로서로를 믿고 따라주고 또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도 아깝지 않고 이 학교가 원하는 관계들이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자치로는 성공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과 학생간의 관계도 학생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생과 학생 간에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교건물을 들어 오는 입구에다가 탁구대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버스킹같은 길거리 공연도 하여서 친구들 간에도 서로 정이 더 가고 웃음이 많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학교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갔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BEST FRIEND 최고의 친구. Best Enjoy Smile Thanks Feel Respect Idea Excuse Need Develop 단순히 최고의 친구가 아닌 알파벳 하나하나에 뜻깊은 의미를 두어 더 좋은 최고의 친구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많이 배워야 할 점 이라고 생각 하였고 말로 만 들었지만 이곳의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학생자치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가 좋은 모습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시 학생의 역할.

학교생활 규정 시 학생의 역할은 그 누구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곳의 규정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편하고 또 질 높은 학교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구마구 표출해내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불편한걸 건의하는 것이 아닌 학교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 불편함 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을 해줘야 하는게 생활규정 시 학생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학생들의 편의만을 봐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학생의 도리를 갖추는 또 학생의 질서들이 잘 갖추어 지도록 이 정도의 판단력을 겸비해서 말하는 것도 학생의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학교생활규정 시 학생의 역할은 우리 학교에서 뭐가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와 학생간에 서로 마찰이 없도록 판단하여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청소년학생연합 이야기.

일단 저희 군산청소년학생연합 (이하 군청학연) 은 교내의 학생회 활동을 넘어서서 보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더 넓은 청소년과 학생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함께 뜻 깊은 일들을 실천해보고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지역 내 학생들이 모여 함께 나아가고 있는 군산지역 학생청소년 연합단체입니다. 학생중심을 위한 단체로써 작년에 이어 올해 2기째를 이어가고, 군청학연의 구성원들은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기에는 군산시내 회장단모임이 군청학연사업의 일원으로 되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회장단의 공약이행이나 공동체적 마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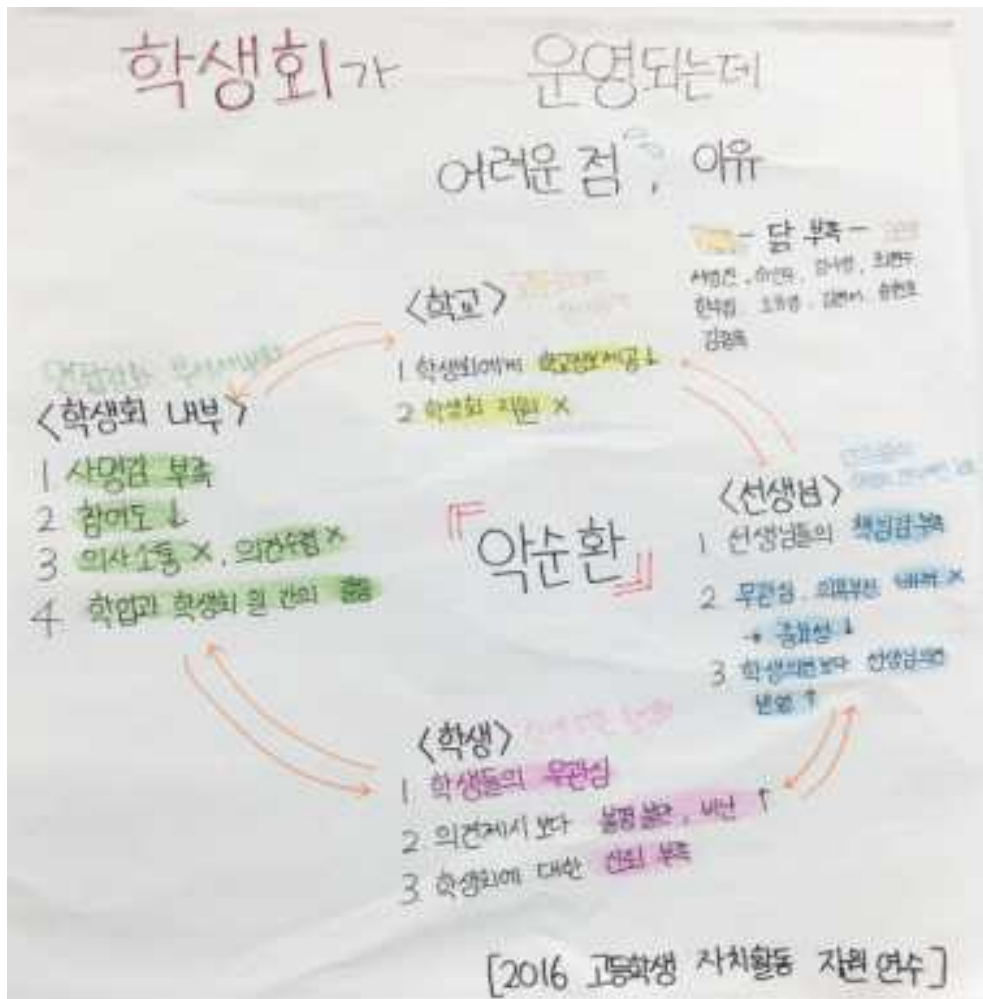
집으로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학연에서는 매년 군산청소년원탁회의를 진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한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군산시내에 있는 각 학교 교내동아리들이 참가하여 자신의 동아리 부스체험과 홍보를 하고 다채로운 공연들을 준비해 학생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쳐서 아마 전라북도 명실상부의 동아리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또한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이번 11월5일에도 학생자치기행 등을 통하여 학생자치의 실현과 방향성을 배우고 또 우리의 민주시민육성에도 열심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우리를 위한 회의들을 진행하여 군청학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또 군청학연 활동만으로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굳게 다져주고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여 시내 학생들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

서지현(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북고교회장단연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줄여서 ‘JBSD(젍디)’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젍디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는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1학년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회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진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2016년 11월 18~19일에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등학생 자치활동 지원연수’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입니다.



위 사진에 적힌 학생회 운영이 어려운 이유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 할 것입니다. 어찌

면 학생회가 잘 운영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는 학교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생회는 학생회대로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간에는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회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학생회’ 영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회는 주로 전교회장과 전교부회장 및 임원(학생회 임원 등)들로 이루어집니다. 회장단은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각 학교별로 학생회를 꾸리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학교 학생회는 각 반의 실장과 부실장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교생들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회로서, 또 각 반의 실·부실장으로서의 일이 너무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각 반의 실장과 부실장들은 학기 초에 반 친구들이 뽑았기 때문에 단지 친구가 많은 학생이 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회 일에 책임감 없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학생회로서 활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른 고등학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 사대부고 학생회는 학생부 선생님께서 면접으로 뽑으시고, 임원들은 반별로 뽑습니다. 학생회를 조직할 때부터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여고는 운영위원회가 학기 초부터 있고 나중에 회장단을 뽑습니다. 유일여고의 운영위원회는 학기 초에 2학년이 1학년을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또 이렇게 선발된 운영위원회가 1년 내내 학교행사를 주관하다가 1학기 말에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면 그때부터 회장단과 운영위원회가 함께 일을 합니다. 전북여고의 학생회는 학생회장단이 먼저 지원서로 1차 합격자 선정해서 2차로 면접보고 뽑습니다. 한별고등학교는 학생회 신청서를 먼저 받아서 회장단이 1차적으로 뽑고 각 학년 담임선생님들과 학생부실 선생님들이 최종으로 확인하여 선발합니다. 유일여고의 운영위원회는 동아리로 편입되었고, 선배들이 뽑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학교별로 학생회를 뽑는 방식이 가지각색으로 모두 다른데요. 많은 학교의 학생회임원들이 책임감이 부족하고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장단이 일을 다 맡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임원들을 선출하기 전 활동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그 부서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선출하고, 그 후에는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각 부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회임원들을 선출할 때에는 교사추천서와 면접 등을 통해 책임감 있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접 등을 통해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선생님과 회장단이 함께 의논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학생회 선출을 끝낸 이후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임원이 있다면 학생회의 동의하에 그 임원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임원을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회도 더욱 적극적으로 화합하여 시너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회가 조직된 후에 학생회를 위한 연수 또는 리더십 캠프 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앞으로의 다짐 및 학생회 1년 계획 등을 정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생회에서 하는 활동은 정말 많은데 이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학업과 학생회 일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 정규시간에 학생자치를 위한 시간 또는 학급회의 시간이 편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회의나 토론할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학생자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습이나 잡담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각 반에게 동일한 회의주제를 주고, 학급별 의견을 기록한 후 각 반의 실장들과 학생회들이 함께 모여 그에 대해 토론을 한다면 학생자치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소수의 의견만이 반영되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전교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의 불만을 초래하는 불상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실장과 부실장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더욱 신중하게 뽑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실·부실장들을 비롯하여 학생회 임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질 것입니다.

미리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 부딪히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앞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은 수정 및 보완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각 학교별로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기에 자신의 학교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보완하며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생회실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매우 다른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학생회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우석고, 한일고, 완주고등학교 등은 학생회실이 없습니다. 회의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학생회실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회 활동을 학교에서 일정까지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은 달라 학생회에서 행사를 준비할 기간이 너무나도 촉박하기도 합니다. 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 행사 일정을 학생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기기간동안 학생회 임원끼리 모여 학생회 1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런 활동은 간부수련회에 가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학생회운영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회장단들의 의견보다도 선생님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설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간동안 설득을 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들이 뜻을 굽히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회가 아닌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전통인 ‘복교기념추수감사예배’는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반마다 선정한 주제에 따라 교실을 꾸미고,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고, 과일을 가져와 불우이웃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학교축제가 없는 저희학교 학생들은 유일하게 자신들의 끼를 뽐내며 즐길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기전동아리발표대회’ 두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열이나, 반에 얽매이지 않고 이 행사에 각자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팀을 이루어 장기자랑을 실시하였는데 올해 선생님들로부터 동아리대회인 만큼 개인이 아닌 동아리끼리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전교생을 대표하는 회장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사항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원래 학생회가 주관하는 장기자랑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저희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가지지도 않은 채 선생님들끼리 회의하신 후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학생부장 선생님께도 저희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말씀드려 보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장단이 교감선생님을 찾아뵙고, 선생님께 정중한 태도로 “이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학생회가 교장선생님을 찾아뵈었고, 학생회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이 함께 모여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자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그것이 과연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는 것일까요? 학생들이 주인인 학교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학생자치의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학생대표인 회장단 또는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교직원 회의에 참여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잘 실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학생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에게 학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학생회이기 때문에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만’을 주장해서도 안됩니다. 이 사항이 학생, 학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학교와 학생회가 지속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 부족의 문제로 학생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회장단을 뽑을 때에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학생들은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기는 1학기 시작전 2월이며 회장단의 임기시작은 9월로 이 시기가 같지 않아 공약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며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만 책정된 예산이 없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책정 시 공약을 위한 확실한 예산을 마련하고 학생회에 공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끼리 모여 학생회 활동 예산안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조유민(이리고등학교 학생회장)

들어가며

학생인권은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學生人權) 또는 학생권(學生權)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학생이 당연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학생이 곧 학교의 주인이라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물론 있지만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에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바로 이번 토론주제인 학생자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생들을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가고 또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학생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자치가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저의 오늘 토론의 내용입니다. 각 학교마다 학생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의 학생회는 학교마다 일하는 내용, 양, 범위가 다릅니다. 먼저 우수사례를 통해 잘 된 예를 보고 우리 학생회의 문제점을 보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마지막으로 학생대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학급자치

학급자치 학생회는 실장, 부실장 또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봉사부장, 학습부장과 같은 학급 구성원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구성원들 모두 완벽하게 자치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급회의 시간을 보면 주로 월요일 아침 자습시간에 하거나 교과시간이 아닌 비는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이 학급회의는 고등학교보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 더 잘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의 자습시간에는 주로 대화를 하거나 공부를 더 원하는 학생이 있어 회의 진행이 잘 안됩니다. 또한 회의주제도 소풍을 어디로 갈지 와 같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급회의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는 실장위주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실장이 거의 다합니다. 간부수련회 같은 경우도 부실장은 가지 않고 실장과 학생회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학생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회 구성원이 실장, 부실장인 학교가 있기도 하고 실장, 부실장이 아닌 다른 학생이 학생회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학급에도 선도 부장, 봉사부장이 있지만 진짜 ‘부장’다운일은 학생회에서 합니다. 반에서 부장들이 하는 일은 주변처럼 게시물 담당이나 청소와 같은 소소한 일을 담당합니다. 거의 이름뿐인 학급자치 학생회라

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는 제대로 된 학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급회의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교전체 학생회 체계에서 학급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활동을 합니다. 학급회의는 가장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이 학급회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불만 또한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런데 학급회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불편한 점을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학급회의를 하며 그 회의결과를 토대로 전체 학생회 회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장위주의 활동을 줄여야합니다. 선생님이 심부름시키면 실장을 시킵니다. 설문지 번호순대로 추려서 가져와라, 유인물 가져다가 애들 나눠줘라 등 심부름을 많이 시키십니다. 그런 것은 주번이나 역할을 정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회장이 학교전체라면 실장은 반에서 선거를 통해 학생들의 대표를 뽑은 것입니다. 반에서의 회장이 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급 학생회 또한 학교전체 학생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연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학생회의 같은 경우 실장이 반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선도부 회의, 봉사부 회의. 이러한 회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각 부서 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학생회에서 추진하려는 일이 그 부서와 관계가 있을 때, 행사가 있어서 관련된 일을 추진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학급회의와 전체 학생회의가 의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모이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각 반의 부장이 전체 학생회의의 실장처럼 학생회 부장이 전체 학생회의를 이끌어나가는 회장처럼 각 부서 회의를 통해 좀 더 세세한 면을 다루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반을 또 하나의 학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통해 학급회의 활성화와 실장위주의 활동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로 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표의 생각이 아닌 준비가 된 반 학급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의 진행이 쉬워집니다. 이곳저곳에서 실장을 불러서 각 반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반의 부장들을 불러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급자치의 의미를 확실히 살린 정말 학급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가 잘 안 되는 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학생회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 대한 기획, 진행과 같은 활동, 학급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실현해 가는 활동, 마지막으로 회장단의 공약을 실현해 가는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의입니다. 학생회는 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제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 학생회이기전에 동급생 또는 친

한 친구의 관계이다 보니 다른 이야기로 새기도 하고 회의의 형식에서 많이 벗어나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생기고 회의를 준비해오고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과 떠돌고 집중을 하지 않는 학생회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로 책임을 피하려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이나 기획부장은 답답함에 화를 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며 회의를 통해 분배할 일을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일부의 희생 또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회의시간에 선생님참관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세 번에 한번정도 선생님이 회의에 참관하여 회의도중엔 간섭을 하지 않으나, 회의가 끝난 후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식으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회의 과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의가 끝난 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의 도중에 피드백을 받을 경우 그 회의상태자체를 선생님에게 보여줄 수 없을뿐더러, 학생들만의 회의에 선생님이 간섭을 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의가 잘 안 되는 점은 선생님의 회의 참관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회의 참여의 저조입니다. 회의할 때 진행하는 사람과 일부 몇 사람만 말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몇몇 학생만의 의견수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이행하면 상당수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학생회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반대표로 뽑은 혹은 학생대표로 뽑은 실장이나 회장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어필하지 않고 '알아서 되겠지' 라는 식으로 앉아만 있다가 갑니다. 심지어는 말 잘하는 몇몇 학생조차 없을 경우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어 결국 진행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수긍 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의함입니다. 많은 학교에 건의함이 있습니다. 기숙사 건의함, 급식 건의함 등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건의함을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라는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내가 해봤자 바뀌겠어 하는 생각이 있고 둘째로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본다는 점, 마지막으로 건의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 이유에서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내가하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건의함입니다. 마지막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먼저 건의함이 어디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구조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특성상 쉬는 시간, 아침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수업시간 중, 야자시간 중 등등 다양한 시간대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며 학생들이 평소 가는 곳이라 찾기도 쉽습니다. 또한 건의를 하러가는 것인지 화장실을 가는 건지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알 수 없으므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건의함을 설치해 가까운 반에 청소당번에서 건의함 담당을 지정하여 학생회에 건의하는 문서를 전달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여 보다 더 많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많으면 회의할 것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목표의식을 깨워 몰두 할 수 있게 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회의하는 사람들이 회의내용을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 주제가 뭔지 준비해야할 것이 뭔지를 몰라 준비를 했었다면 충분히 말했을 내용을 그렇지 못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회의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학급학생회와 전체학생회 회의 연계 방식에서 회의하기 1주일 전에 회의주제를 전체학생회에서 학급학생회로 전달을 하고 그것에 대해 학급학생회가 회의1주전으로 학급회의를 하고 전체학생회의에서 학급에서 모은 의견을 제시하면 활발한 회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건의함 활성화와 회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학생들 의식을 깨워 충분히 활발한 회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다음으로 회장단의 공약을 실천할 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9월달에 국회에서는 총 예산을 짜고 그를 토대로 지방정부에 배분하며 또 이를 다시 학교나 공공기관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산을 연말, 연초에 기획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은 연초에 뽑는 경우도 있지만 익산만 해도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9월에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시기와 당선시기가 달라 공약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공약에서 만해도 현관에 신발장 설치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3학년이 될 경우 학생들은 수험생이 되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합니다. 회장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진로와 꿈 역시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대학입시가 있기에 우리는 공부해야만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약을 하고 싶어도 공부에 큰 지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큰 행사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2학년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약이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학생회에게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천이 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공약을 이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해결책으로 현 학생회장이 예산 편성시기이기도 하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기인 겨울방학에 ‘공약비’라는 항목을 예산안에 추가할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회장 때에도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아예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공약실천을 할 수 있고 둘째로 그 다음 회장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에 대해 보다 쉽게 해결가능 하고 마지막으로 학생자치가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핵심인 학생회의 주체적인 활동에서 특히 회장단 공약실천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학생회공약 예산을 따로

확보함으로서 공약 이행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생회를 하는 많은 학생들이 하는 고민이 바로 성적일 것입니다. 학생회일을 하다보면 공부를 놓치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며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학생회 일을 하면 할수록 공부할 시간은 줄어든 것입니다. 혼자서 조절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가끔씩은 이런 것에 관해 상담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학생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공부하는 시간도 본인이 잘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사례 지역별 학생회 연합이야기

JBSD익산(이하 썸디 익산)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지원은 미흡하나 익산 학교 대부분이 소속되어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많이 없지만 ‘처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의 좋은 점을 배우며 발전시키고 익산 전체적인 고등학교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정보교류와 참여하는 학생 그리고 주최하는 학생 모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현재 진행된 것으로는 체육대회, 시국선언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였고 시국선언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해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썸디익산은 초창기라 미흡한 점이 많아 각 학교 우수 학생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리고등학교입니다. 이리고등학교학생회는 총 11가지 부서로 구성됩니다. 총무부, 학습부, 선도부, 동아리부, 문예부, 자치법정부, 체육부, 홍보부, 정보부, 서기 그리고 또 하나의 부서 회장단. 전체 학생회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가요벨소리, 여름 생활복교복 추가를 선생님들에게 건의하여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면에서도 좋은 결과들을 많이 이루어 냈습니다. 각 부서들 마다 역할이 있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 중 가장 우수한 부서들 몇 개를 뽑으라면 자치법정부, 체육부, 정보부입니다. 먼저 자치법정 부는 학생자치를 가장 잘 실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처럼 판사, 검사, 배심원, 변호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구성원이 모두 학생입니다. 자치법정에 오는 학생들은 과별점자 학생이라고 불리우며 그린 마일리지 별점 13점을 넘긴 학생들입니다. 지각부터 흡연까지 다양한 항목으로 별점을 받은 학생들이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통해 억울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며 반성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과별점자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때 지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담배를 피면 다른 학생에게 피해 갈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등등. 그리고 배심원은 검사의 교육적 처분에 대해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판사는 이를 참고하여 캠페인이나 청소같은 교육적 처분을 과별점자 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했던 재판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흡연과 지각 항목으로 법정에 오게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리고등학교 자치법정 같은 경우 지각같은 경우와 다르게 흡연에 대해선 매우 엄격한 교육적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과별점자 학생은 현재 자신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법정에서 말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변호인은 학생부실에서 직접 흡연측정기를 가져왔습니다. 판사는 검사로 하여금 결함이 없는지 검사하게 하고 과별점자 학생이 측정기를 붙였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훌륭한 변호인을 통해 현재 반성중이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학생은 결국 앞서 흡연으로 인해 엄격한 교육적 처분을 받은 과별점자 학생에 비해 보다 완화된 교육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재판처럼 증거도 제출하고 검사와 변호사간에 그 학생의 잘못된 것에 대해 짚으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처분을 받도록 이끄는 것은 구성원과 과별점자 학생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알게 해주고 잘못을 했을 땐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타인을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도록 큰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부는 학교에서 축구리그를 개최합니다. 축구리그를 통해 공부만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으로 친목도 다지고 머리도 맑게 깨우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올해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축구리그가 이름처럼 리그가 아닌 토너먼트식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경기를 한번하면 떨어지는 반이 많아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리고등학교 학생회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학교 측에 건의를 하였고 그동안 시험기간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던 점을 보고서 학생회의를 통해 오각형리그를 생각하여 최소한 2번씩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학교 측과 날짜를 조정하여 진짜 리그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경기를 하고 또 볼 수 있었고 학교가 다닐만 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학생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여 이행한 학생회다운 학생회라는 점에서 우수사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부입니다. 정보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며 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페이지는 선도부와 학생회의 등교지도, 급식지도 일정만 공개하거나 외부에서 행사홍보를 요청한 것만 올리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페이지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급식과 소소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리고등학교 학생회정보부는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매달마다 급식표를 올리고 대학캠프와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을 올려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리고등학교학생회와 그 부서 몇 개의 우수사례를 말씀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실천에 옮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치법정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른 학생의 잘못된 점에 대해 이유를 듣고 책

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학생자치를 거의 완벽히 실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 역할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의 갈등에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엄격한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대표인 회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생활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선생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규정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활발히 될 수 있고 학생들의 의사를 대표가 확실히 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연말에 이루어져 그 다음연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회 측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학생회 회의를 통해 각 학급의 의견을 듣고 공통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적인 수렴이 아닌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쪽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내는 규정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평소에 잘 내지 않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음악을 틀고 게임을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허용한다면 시끄러운 분위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학생회 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하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의견을 학생의 대표는 학교 측에 확실히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학생은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규칙을 반대표에게 전달하고 반대표들은 그 의견을 모아 학생 대표인 회장에게 전달을 하고 회장은 학생회와 함께 그 의견을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학교 측과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전까지의 학생들의 역할은 이러하고 개정 후 또한 중요합니다. 바뀐 규정을 세세히 공고하여 학생들이 바뀐 규정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법과 정치시간에 나오는 정치과정에서 배웠듯이 투입이 있으면 이에 대한 환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정 후 3개월간 임의로 시행해보고 3개월 뒤에 설문 조사를 통해 바뀐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긍정적이면 그대로 확정을 하고 또다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거기서 또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데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그냥 학생회 차원에서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학생전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소수 학생회가 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야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한 규정에 따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직접적인 규정개정은 학생 대표인 회장 한사람이 참여하지만 그

뜻은 다수의 학생이 만들어 낸 것이므로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규정을 지키며 학교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불만이 없는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은 학교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는 학생회가 아닌 학생 전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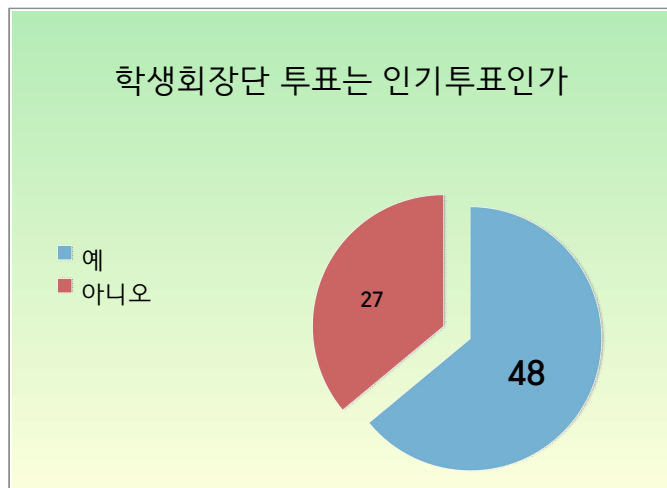
학급회의와 학생회 회의 그리고 학교생활규정에서 학생의 역할까지. 앞서 말한 대로 이루어 진다면 정말 이상적인 학생자치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이 방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시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이상적인 학생 자치활동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말한 방안은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은 학생의 본분으로 이어집니다. 학생의 본분은 누가 뭐라 하여도 공부입니다. 학생들은 중간 중간 마다 시험을 치고 시험을 대비하여 그전에 공부할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대학교를 가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자치를 완벽히 활성화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벽으로 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주인처럼 행동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발전시키면 원하는 방향은 아니더라도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학생회

임선희(전주용흥중학교 학생)

안녕 하세요 저는 전주용흥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임선희입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실장과 부실장을 하면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과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보니까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중1 때부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2기와 3기를 하면서 학생인권심위위원회도 같이 활동을 해보니 더욱 더 학생에 관해 인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 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생참여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주제로 학생의 관한 것들을 토의 했었습니다. 학생자치, 생활규정, 인권침해, 학생회 등 많은 주제 속 매년 주제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학생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입니다. 학생회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고 실행하는 조직 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회에선 어떤 일을 의논 하고 실행 한다고 정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선 학생회가



의논하고 실행하는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회장단 선거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이나 신뢰감 등 다양한 것을 생각한 뒤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초,중등 학생들이 선거의 대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 인기 투표 아니야?” 사실상 회장단들의 활동 이나 공약실천 여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왕이면 나랑 친분이 있는 친구에게 투표를 하니 인기 투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회장단 선거는 인기투표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75명 중 48명이 “예”라는 대답을 하였고 27명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64%정도가 “예”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보아 인기투표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당선된 회장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학생회를 꾸리게 됩니다. 학교마다 회장, 부회장이 직접 학생회 부원을 뽑는 경우 와 공개모집을 통해 부원을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회장단이 직접 부원을 뽑습니다. 여기서 뽑는다는 의미는 학생회장이 직접 부원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학급간부끼리의 학생회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학생회에 부서가 있고 간부를 뽑는 다는 걸 3

학년 때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단이 직접 간부를 뽑게 되면 학생회의 관심이 있어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못하게 되고 학생회는 제한적인 학생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의 의견듣기가 어려워 지고 이로서 활성화가 어려워 지는 이유 인 것 같습니다 .

부원 공개모집을 통해 부원을 뽑게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가고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3학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선 1학년엔 전교부회장이 없습니다. 1학년은 학교를 입학한지 별로 안 됐으니 학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1학년에는 전교부회장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미 신입생이 입학하기전에 회장선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학년 에게도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줄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학교를 잘 모른다면 차차 알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회에서는 회장단의 공약 실천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회장단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을 생각해보니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건의함 설치”라는 공약을 내세 옵니다. 그 공약의 목적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의함 설치 장소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함의 설치 장소는 모든 학년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여야 하는데 작년까지 저희학교에 경우 2학년이 쓰는 복도에 설치가 되어 1학년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부터는 건의함 사용을 없애고 매주 학급실장들에게 각 반 학생들이 종이에 건의사항을 적게 하였더니 더 효과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장에 따라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작년 건의함 설치의 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학생회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학생회 측에서도 말하고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학생회를 통해서라도 왜 그런 건의사항을 들어주기 힘든지에 대한 이유라도 설명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회에서는 그런 이유를 실장을 통한 알림이 아닌 게시판 결과 알림이던지 많은 학생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회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의에 대한 일반학생 참관이라든지 회의결과 게시판 공고 등 다양하게 소통을 한다면 일반학생들에 학생회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제가 직접 학생회장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본 결과 좋은 방법인 것 같으며 앞으로 해 볼 의향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 이지만 선생님들의 뜨거운 지지나 적극적인 지원이 학생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창제시간 안에 자치활동을 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재량활동이나 자율학습 ,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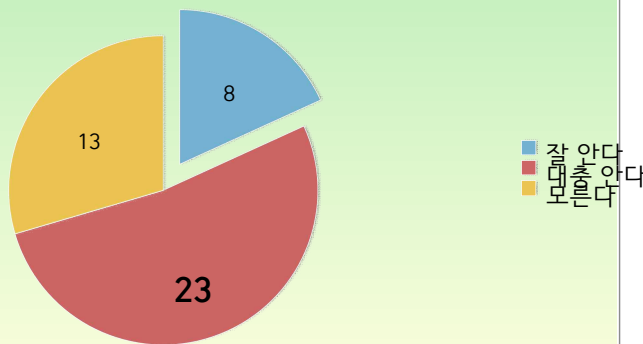
회의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학급회의가 원활 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 학급 내 에서의 의견 듣기가 어려워지고 조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급회의를 하게 되면 반 전체에 의견수용도 쉽게 가능하며 학급 내에 문제 사항 등을 여럿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급에 대한 공지 사항 이나 학교상황 등을 자세히 알려주기에 효과적입니다. 물론 학급회의가 오래 걸리지 않아 남은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해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학급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기초에는 각 반에서 환경미화부 , 체육부 , 도서부 등 다양한 부서를 만드는데 그 부서의 역할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부서의 존재나 역할들은 학생에게 잊혀지고 부서의 역할을 실장과 부실장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기 초 부서원들을 선출할 때 어차피 “필요 없는 것” ,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것” 하고 간단하게 선출하곤 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없기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실장과 부실장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각 부서에 나눔으로서 학생들의 역할과 소속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원활한 학급운영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외투색상 제한, 두발제한, 교복수선 등 각종 사항들을 학교생활규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 측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있으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7조]에 따라 규정을 개정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일 것 같은데요, 이곳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는 학생 대표 , 교직원 , 보호자 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권전문가를 포함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을 40%이상 포함하여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반영이 되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바뀐 규정들이 있습니다 치마길이 나 교복바지 통 , 두발자유 , 각종 장신구 착용 등 여러 규정이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한 권리] 로 인해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 좋지만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기 초에 학교에서 생활규정에 대한 설명과 개정이 필요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도 이런 방법을 모르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규정에 관한 설명을 입학식 때 입학생위주만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3년 동안 학교를 다녀보니 입학식 때 한번 한 설명회로서는 오래 기억에 남지 않고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앞으로 입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에게도 생활규정에 대한 학기 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 라고 설문을 한 결과 44명 중 8명이 “잘 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8명중 5명 정도는 학생회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량

우리학교 생활규정에 대해 알고있다



인 23명이 “대충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2가지 정도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규정교육 받은 것에 기억이 떠오르는지”라고 질문한 결과 “기억이 안난다”에 대한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런 교육이 있어?”라고 되묻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후 대충 아는 생활규정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니 “대

충 그동안 선도부가 잡는거 보고 걸리는 것이라 별점 받게 되는 상황 보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대답한 학생이 다반사 이였습니다. 생활규정교육을 통해서가 아닌 단속을 통해서 일단 먼저 걸리고 난 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때 생활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입학생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화했기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 들을 한 번에 들으려니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루한 분위기에 조는 친구들도 있었고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그냥 우리학교는 이렇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규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교생활규정과 함께 선도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3월 초에 인천 시 교육청에서 선도부를 폐지 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선도부폐지에 관한 여러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선도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으로서 선도부의 관한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모두 평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나 교사 수 부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렵다며 선도부를 만듭니다. 그 후 선도부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게 질서위계에 대한 것이라며 복장 단속이나 등교시간 때 교문에서 지각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 하는 것은 교사들의 지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 이자 학교폭력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부가 단속를 할 때 자신과 친한 학생이 있으면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는 친한 친구이니까 봐주고 학용품을 사다주면 적발 사실을 지워줘 학생들 사이에서 “권력형 비리”까지 나온다고 기사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도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부들이 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기도 하며 단지 봉사활동시간을 위해 부서의 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부가 단속을 할 때 저학년이 고학년을 단속할 경우 고학년에 협박과 폭력이 시달리기도 하며 같은 동급생이면서도 학생들 말로 “잘 나가니까 못 잡는다”라며 학생들 간에 단

속해야 할 학생과 무시해야 할 학생이 나뉘기도 합니다. 과연 선도부는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 일까요? 이렇게 학생인권침해 와 학교폭력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선도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 마다 “선도부를 폐지하게 되면 학교질서가 무너진다” 라고 주장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에 질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선도부 즉, 학생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에 대해서는 선도부가 아닌 학생회에서 질서를 위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 경우 교복미착용 과 규정에 어긋나는 수선으로 “잃어버린 교복을 찾아서”라는 캠페인을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교복을 올바르게 입고 다니자 라는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 후 1,2차 예선을 거쳐 3차 최종에 선발된 학생 10명에게 교복상을 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 캠페인이 열리고 나서 교복상을 수상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고 이젠 교복단속이 아닌 스스로 올바르게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허그데이” 라는 걸 만들어 아침 등교시간 때 선생님과 학생들을 서로를 안아주거나 학생과 학생들끼리의 포옹을 통해 아침을 반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현재 선도부가 폐지된 몇몇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희 학교에서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사제시간 간에 관계도 개선된다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만약 선도부가 폐지되고 허그 데이로 아침을 맞이한다면 아침마다 선도부에 대한 반감도 없어지고 기분 좋게 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도부의 일침인 “학번!” 대신에 “오늘 하루 파이팅!” , “힘 내!” 등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도부대신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만든 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도부폐지 후 아침등교 시간에 “허그데이”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서운고/ 출처:중앙일보



인천 석남중학교 학생들이 아침등교하면서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공=인천교육청

맨 앞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저는 2014년부터 학생참여위원회2기 활동을 하며 학생 인권과 학생자치 등 많은 것을 배우며 다른 학교사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학생참여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전라북도 학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자치 나 학생인권 , 학생 인권의 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제가 학생참여위원회를 하면서 학생 인권의 날이 4월2일 사이좋은날 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자세히 배우고 각종 자신들의 학교에 대한 문제점이나 잘된점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의견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서 받은 조언이나 다른 학교에 모범 사례들을 자신들의 학교에 의견을 내놓기도 하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던 나의 상황들을 배우고 나니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느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면 침해 받는다는 걸 정말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더욱더 폭 넓은 범위에서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참여위원회에서의 소통의 장점처럼 학생회에서도 소통을 중요시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학생들도 학생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조언들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위를 내려 놓자

김지훈(전주고등학교 교사)

I. 아이들의 눈으로 본 학교

1. 한 고등학생의 가상 일기

해는 아직 없다. 눈꺼풀은 눈을 덮고 있다. 더 잘 시간은 없다.
 좀비처럼 교복을 입는다.
 밥 먹을 시간은 없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 오시긴 전 교실에 들어오기 성공. 허겁지겁 들어오느라 화장실을 못갔다.
 아침부터 선생님의 잔소리가 길다. 사물함에 책도 못 가지고 왔다. 1교시가 바로 시작 되었다. 교과 선생님께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다. ‘쉬는 시간에 뭐 했냐?’라며 종치고 화장실 가냐며 한 소리를 들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별 신경 안쓴다.
 서서히 눈이 감겼다.
 ‘어제 뭐 하고 학교와서 자냐?’고 또 한 소리 듣는다. 뭐 일상적이다.
 7교시가 끝났다. 아직 방과후 두 시간이 남아 있다. 짜고 싶다. ‘난 아프다’라고 주문을 건다.
 “엄마 나 아파. 방과후 빠질게.”
 비선실세 우리 엄마에게 컨펌하고 담임선생님에게 갔다.
 “선생님, 저 아파요”
 라고, 했더니 담임선생님은 넌 맨날 아프냐고 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인다.
 “아픈 것도 참을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된다.”고 주옥같은 말을 해주셨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아픈 거 참다가 큰 병되요.’
 엄마의 도움으로 PC방 입성에 성공했다. 오늘은 랩업을 해야지.

2. 기대가 없는 학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기다려지는 때는 ‘택배 도착’ 알림 문자다. 어제 주문한 물건이 집에 와 있다니 지금 당장 달려가 택배를 뜯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몇 달을 고심하여 산 물건에 대한 기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학교에는 기대가 없다. 친구들과끼리 밥먹고 운동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옛 사람들이 했던 일을 듣고 있는 것은 재미가 없는 일이다. 재미가 없으니 기대도 없다.

대부분 학급회의 시간은 자습시간이거나 수행평가 시간으로 활용한다. 중학교때부터 학급회의 시간은 있었지만 그 시간이 학교 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잘 모르고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낸다. 실장·부실장 선거, 회장·부회장 선거는 학생 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성에 대해 둔감한 편이다. 실장·부실장을 선출하는데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담임선생님이 임명을 하는 바람에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사례도 보았다.

오늘 내가 학급 회의 시간에 낸 안건이 학급회의 시간에 논의되어 다음 학급회의 시간에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학급회의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전용되어 학교에 불만이 생겨도 어디에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한다. 이 곳에 올려진 글에 대해 담당자들은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답글을 단다. 처리 속도가 의외로 빠르다. 이에 대한 소문은 학교에 삼시간에 퍼져 교육청이나 청와대에 글을 올리면 학교가 움찔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3. 그들만의 학교

회장·부회장 선거에 나간 학생들의 공약은 매해 비슷하다.

‘무엇을 만들겠다.’

‘무엇을 폐지하겠다’

3학년이 되면 후보들이 들고 나온 공약들이 식상해진다. ‘또 생활복을 만들겠다야?’라며 혀를 끌끌 찬다. 매년 같은 공약이 만들어지지만 실천은 잘 되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호응하지 않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에 불만이 많다. 일단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저녁 늦게 가는 것부터 불만이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건조한 것이 불만이다. 학교 급식이 맛이 없는 것이 불만이며 학교에 매점이 없는 것도 불만이다. 수업·시험·수행평가 점수에도 불만이다. 이러한 불만을 종합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창구가 학생회장단이다. 학생회장단은 축제와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부수적인 조직이 아닌 것이다.

회장단을 뽑아 준 학교 구성원들과 회장단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1년 마다 쌓이는 학교에 대한 불만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졸업과 동시에 잊어버린다. 학생들에게 학생회장단은 교사편으로 인식한다. 회장단으로 선출된 학생들은 대부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두 관계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그들만의 학교가 되고 만 것이다.

II. 통치 > 자치

1. 회장을 임명한다

나는 교육 경력이 길지 않다. 만 육년 십개월. 나는 3개 학교를 거쳤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급 실·부실장 선거는 3월에 이루어지며 회장·부회장 선거는 6월 경에 이루어진다.

학급 담임을 맡으면 학급 실·부실장 선거를 거창하게 치른다. 다른 반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지고 내가 누군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학급 친구들 10명 이상의 추천 서명과 자기소개서,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실·부실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와 선거 벽보를 보면 나를 어떻게 알려야할지, 1년간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할지 밤새 고민한 흔적이 나타난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들의 공약이 제시되어 있으며 나는 이 벽보를 교실 뒤 게시판에 걸어 놓고 1년간 학급을 운영할 실장과 부실장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학급의 유권자들은 친구들의 프로필과 공약을 쉬는 시간을 이용해 훑어보며 누구를 선택할지 마음속으로 결정한다.

선거 당일, 입후자들의 정견발표 후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활용해 선거가 이루어진다. 현대 선거의 4대원칙을 배우는 시간인 것이다. 비밀, 직접, 평등, 보통선거의 원칙을 학급 자치를 통해 배우게 된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곧 바로 이어진다. 이게 뭐라고 아이들은 가슴을 졸이며 개표현황을 지켜본다. 결과가 난 후에 당선자는 수락연설을, 낙선자는 아쉬움의 연설을 듣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얼마 후 임명장을 수여한다.

학생회장·부회장 선거는 학년도가 달라져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6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9월 1일부터 임무를 수행한다. 위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되어 실제 선관위의 투표함과 기표소가 공수되고 후보의 유세단이 등장하기도 한다. 등하교 시간에 후보 당선을 위해 유세단은 바쁘게 움직인다. 결과가 난 후 회장과 부회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학급 또는 학교 선거를 거쳐 선출된 선출직 임원에게 왜 당선증이 아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일까? 학생을 학생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학교 자치의 핵심 학생들이 임명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수 있을까? 학생들은 학교 운영의 동반자이기 보다 미성숙한 학생으로 보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학생 자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2. 학생 자치는 없다.

세 학교를 다니며 느낀 것은 학생자치는 학교에서 없다는 것이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학교 안의 요인이 크다.

교사나 학교장은 학생 자치를 크게 반기지 않는다. 교사는 학급에서 혹은 수업에서, 학교장은 학교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두 주체에게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고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시를 내려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불만만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 교사가 나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 학교 운영에서 학생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학생 자치가 없는 것은 어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개인적이다. 학교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라는 대로’

스스로를 수동형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피하거나 쉬운 방법을 택한다. 문제가 있는 당사자와 대면하는 것을 꺼리며 결국 인터넷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모든 학교에 일반화 하기에는 정확한 자료나 연구된 결과가 없지만 결국 학교를 구성하는 내부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자치는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3. 걱정과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죽 하면 걱정말라는 노래가 나왔을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물론 걱정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미래는 수 많은 생각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사들과 관리자들도 걱정이 많다.

‘애들끼리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핸드폰을 건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지 않을까?’

‘용모규정을 완화하면 학생답지 않을까?’

‘학생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더 큰 요구를 할텐데?’

‘자기들이 잘 난줄 알고 날 뛰면 어찌지?’

이런 걱정들은 학생들을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어린 아이들’의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다 학교 운영의 본질을 놓치고 만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조상들은 장을 담갔다. 집집마다 비법을 전수하며 다른 맛이 나는 독특한 장을 만들었다. 걱정은 걱정으로 묻어두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학교마다 독특한 학생자치의 장이 마련되어 민주시민으로 기초적인 지식을 실천을 통해 배워나가지

않을까?

Ⅲ. 이럴려고 교사했나

1. 첫 한 달은 웃지 말아라

선배교사들이 초임교사나 저경력교사에게 학급운영과 교과수업에서 첫 한 달은 웃지 말라고 조언한다. 일종의 기싸움으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1년이 고생스럽다는 선배교사들의 경험에서 나온 충고이다.

웃지 말라는 것에는 얼굴표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투, 행동들도 포함된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학생들은 교사를 파악하고 이미지를 형성한다.

‘무서운 선생님’

적어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수업시간에는 떠돌고 돌아다니고 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 받는 아노미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나. 나는 무섭지 않다. 오히려 웃음이 많고 아이들의 거짓말에도 잘 속는다. 사실 알면서도 속아준다. 첫날부터 웃고 떠드는 수업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은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고 무질서해진다. 아무 때나 질문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일쑤다. 나는,

‘무섭지 않은 선생님’이다

나의 첫 한 달은 교과에 대한 선입견 깨기, 꼭 닫힌 입 열게 하기, 내 생각 써보기, 모둠활동에서 기본적인 예절지키기 등을 훈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 나는 웃는다.

2. 교실붕괴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들은 어른 흉내를 제법 낸다. 화장은 더 예쁘게 하기, 담배 멋지게 피우기, 치마 더 짧게 입기 등 어른이 되어 가는 준비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몸은 성인에 가까운데 생각은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 자신이 해야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흐린다. 이에 대해 교사가 제지하면 학생들은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반격’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교육연구가들은 교실 또는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막아보고자 많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협동학습, 배움의 공동체, 하브루타 등 다양한 학생 참여의 수업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한 경쟁체제에 내몰린 학생들은

일찍부터 포기하거나 경쟁에서 지친 학생들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하는 순간이다. 지금같은 학교 체제에서는 희망없는 아이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

3. 희망이 없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 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힘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국영수와 모의고사에 지칠대로 지쳐 고3때에 아이들은 거의 좀비가 된다. 수업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 돌아다니며 점심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진학을 한다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답은 어떤 학과이기 보다 무슨 대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 아이들은 뭘 배우고 싶은지 보다 어떤 간판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이런 헤게모니는 아직도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 입시체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학부모, 교사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학교의 간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TV프로그램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 강조하는 것이 ‘포기하지 말라’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실패는 일찍 맛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맞다.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포기하지 않아도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다. 오죽하면 ‘금수저, 금수저’할까?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학생 자치’는 공허하다. 아이들에게 소소하게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학교에서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을 믿어야 한다.

IV. 학교를 깨자

1. 권위를 내려놓자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교에서 권위는 아마도 전자가 아닐 듯 싶다.

‘교사의 권위’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무섭게 보여 감히 나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는 힘일까? 아니면 그림자도 신성시 하는 교사의 힘을 말하는 것일까?

‘師(스승 사)’자 붙은 직업 중에 교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만만한 직업일 것이다. 의사, 검사, 변호사에게 따지고 깽판부리는 사람 있는가? 교사는 학부모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큰소리치면 ‘죄송합니다’를 말해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교사의 권위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유독 교사들만이 권위를 놓지 못

하고 있다. 그것은 교사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사로서의 ‘격’이 권위이며 이것을 포기하면 교사의 ‘영(令)’ 먹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억박지르고 지시하고 체벌을 하기도 한다. 20세기 일제강점기 교사는 그래야 했다. 식민지의 이등국민들에게 대일본제국의 가치를 심어주고 복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강함과 일방적인 교육에서 화합과 소통의 교육으로 21세기의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20세기 권위를 내려 놓고 21세기의 따뜻한 권위를 세워야 한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말할 때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는 따뜻한 권위가 필요할 때이다. 이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때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이다.

2. 학교운영의 실질적 파트너로 삼자

학교 운영에서 학생들은 빠져있다. 학교 운영은 대개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어른들이 다수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교무 회의 또는 부장 회의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떨까? 아마 선생님들 사이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새어나갈까 하는 불안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두 회의에서 오고간 내용 중에 비밀스러운 내용은 별로 없다. 학교 운영의 필수적인 두 회의에 학생대표를 참여시켜 그들이 회의한 내용과 선생님들에게 전달할 사항 발표,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과정속에서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논의되고 실제 실행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생길 것이다.

3. 함께 가자

학생 자치는 교사들이 학생에게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다. 학교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학교에서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할 부분이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음에는 느리고 뜻한 바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 아가들이 수백·수천번 실패 후에 걸음마를 땔 때 부모들이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라면 응원을 하듯 교사들도 학생들이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깨우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응원해주어야 한다.

‘잘하고 있어!’

‘역시 회장이야!’

‘고생이 많다!’

학생들도 학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 해안을 가졌으면 한다.
예의는 갖추되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배워나가는 멋진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토론주제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human.jbe.go.kr>